오늘의 禪語

⑩ 보임(保任)

미완의 깨달음 완성하는 것

'보임(保任)'이란 '보호임지(保護任持, 잘 보호해서 가지다)'의 준말로서, 깨달은 바를 잃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은 바를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보호하는 것, 또는 깨달은 바를 돈독히 하는 작업이 보임입니다. 즉 배운 것을 숙련 · 체화시키는 과정이 보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점수(漸修)' 또는 '오후(悟後)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선에서 '보임'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임을 소홀히 하면 '다시 매(昧)했다'고 하는데 그 뜻은 '다시 어두워졌다'는 뜻으로 곧 깨달은 바를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90년대를 전후하여 깨달으면 더 이상 수행(보임)할 필요가 없다는 돈오돈수와 깨달은 뒤에도 계고 중생적인 갖가지 습관(버릇)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1차 목표는 물론 깨달음이지만 깨달은 뒤에도 많은 역경(=魔)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을 초월할 것 같지만 여전히 사물이나 이성을 보게 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백치나 목석이 아닌 이상 돈을 보면 갖고 싶고,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타인이 비난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근심이 닥치면 고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동요가 미세하여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가까이 하게 되면 마음의 흔들림은 점점 심하여 나중에는 깨닫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 가버립니다. 보임이란 번뇌의 뿌리가 다시는 싹트지 못하도록 고사시키는 작업입니다. 미세한 동요와 욕망 ·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는 작업, 그것이 보임입니다.

또 보임은 지혜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수행승으로서 본분에 맞는 올바른 삶,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 가는 작업이 보임입니다. '생활의 발견'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역시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요즘은 남녀 할 것 없이 운전면허증은 기본입니다. 1~2개월 동안 학원을 다녀서(수행해서) 운전면허를 땄다(깨닫다)고 해서 당장 차를 몰고 복잡한 시내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거리를 운행하자면 얼마간 더 연수해야 합니다.

또 설사 4차선 같은 넓은 길은 겨우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좁은 골목길이나 신호를 보는 요령 · 주차 요령 등 운전의 모든 노하우를 익히자면 학원에서 배웠던 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비포장도로나 빙판길, 언덕길을 갈 때에도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빙판길은 저속으로 가야지, 속도를 내면 굴러 떨어집니다. 급경사를 내려갈 때에는 브레이크만 사용하면 고장이 납니다. 그 때엔 엔진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익히는 과정이 보임이고 점수이며, 오후(悟後, 깨달은 뒤의)의 수행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운전을 하면서도 음악도 듣고 옆 사람과 이야기도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체화되어 자기 것이 된 상태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중생제도, 그리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도 보임의 한 과정입니다. 망설임, 두려움은 보임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식에 머문 깨달음을 체화시키는 것, 미완의 깨달음을 완전한 깨달음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보임입니다.

자기의 본심을 찾아 과정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데 비유한 심우도가 있습니다. 열 폭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다섯 번째 단계가 목우(牧牛, 소를 기름)로서 한 수행자가 풀밭(번뇌)으로 들어가려는 소의 고삐를 열심히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것이 보임입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10도)인 입전수수(入廛垂手, 중생 속으로 들어가다)가 다름 아닌 깨달음이 완전히 성취(자기화)된 단계입니다. 깨달음이 자기화가 되면 아무리 번뇌의 소굴로 들어가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멋있는 이성이 나타나도 돈이 가득 쌓여 있어도 마음에 동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80먹은 노인이 아닌 이상 고목(枯木)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욕으로부터, 명예욕으로부터, 비난과 원망으로부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목표란 지향점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해 두고 노력 정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진실한 수행자일지도 모릅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음 후 마음의 동요· 욕망 뿌리뽑는 지속적 연마
돈오돈수·돈오점수의 논쟁 후 더 중요한 주제로 부각

신행게시판

●**조계사 〈범망경〉 산림대법회**=서울 조계사가 3월 2일부터 〈범망경〉 산림대법회를 열고 있다. 16일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이, 23일과 4월 6 · 20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관 스님이, 3월 30일에는 前 동국대 교수 인환 스님이, 4월 13일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무진장 스님이, 27일에는 조계사 주지 원학 스님이 법사로 나선다. (02)732-2183

●**해인사 스님들과 함께하는 자비행선**=합천 해인사가 3월 9일부터 매주 일요일 낮 12시 걷기명상과 암자순례를 겸한 '스님들과 함께하는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자비행선은 분별과 경계를 떠나 지금, 여기에서 일체가 동체임을 알고, 큰 자비심을 내도록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인사 자비행선 코스는 해인사 해인도 앞에서 출발해 지족암 오솔길, 국일암 오솔길, 삼선암 · 금선암 계곡길, 원당암, 홍제암, 외나무다리를 거쳐 해인도 앞에서 끝난다. 30분씩 세 차례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의 안내로 자비행선을 하며 중간 중간 휴식시간도 갖는다. (055)934-3105

●**여래사 〈금강경〉 사경기도**=일산 여래사가 부처님 출가일인 3월 15일(음 2월 8일) 입재해 열반일인 3월 22일(음 2월 15일) 회향하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금강경〉 사경기도'를 봉행한다. (031)905-7766

●**구룡사 템플스테이**=원주 구룡사가 3월 15~16일, 29~30일 두 차례에 걸쳐 봄맞이 템플스테이를 마련한다. 구룡사 템플스테이는 요가, 습의 및 사찰예절, 발우공양, 108염주 만들기, 새벽예불 108배, 참선, 세렴폭포 산행, 연등 만들기, 한지공예, 도예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033)732-4800

●**한국정신과학학회 3월 집담회**=한국정신과학학회 서울지회가 3월 15일 오후 3시 30분 '불교수행의 정신 치료적 적용'을 주제로 3월 집담회를 개최한다. 〈붓다의 심리학〉을 번역한 신경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한양대 · 순천향 의대 외래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4층 교육학 시청각교육실에 열릴 집담회는 본 강의에 앞서 오후 2시 30분 자유토론으로 시작한다. (02)554-5701, www.ksjs.or.kr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아들 죽음으로 생멸의 본질 깨쳐

⑩ 끼사고따미 장로니

끼사고따미(Kisagotami)는 사밧티(사위성)의 부잣집 딸이었다. 그녀는 부잣집 젊은이에게 시집가서 둘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았다. 그러나 아들은 겨우 걸음마를 할 무렵에 죽고 말았다. 슬픔에 빠진 그녀는 아기 송장을 안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느냐?"며 묻고 다녔다. 사람들은 그녀가 실성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어떤 슬기로운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말했다.

"저기 부처님이 그대가 만나 뵈어야 할 분이라오. 당신이 찾는 약을 갖고 계시다오. 부처님께 가보시오."

고따미는 부처님께 가서 아기를 살릴 약을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죽은 식구가 없는 집안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죽은 아기를 가슴에 안고, 그런 겨자씨를 얻으러 집집마다 다녔다. 하지만 죽은 식구가 없는 집을 단 한 집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자기 가족만 죽은 것이 아니며,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그녀는 곧바로, 죽은 아기에 애착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더 이상 아기 송장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아기 시체를 숲속에 묻고 부처님께 돌아와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죽지 않음을 아는 하루의 삶 중요"
등잔불의 생·멸 관찰로 생사 해탈

그러자 부처님께서 법문하셨다.

"고따미여, 너는 그대만이 아들을 잃은 줄 알았지. 지금 깨달았듯이 죽음은 모두에게 온다네. 욕망이 채워지기 전에 죽음은 쓸어가 버린다네."

이 말씀을 듣고, 고따미는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즉, 오온(五蘊)은 영원하지 않으며, 욕망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며,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님을 완전히 깨닫고서, 두 번째 수행경지인 사다함과를 얻었다. 이에 그녀는 마침내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하루는 등잔에 불을 켤 때 불꽃이 일어나고 꺼지는 것을 보고, 그녀는 존재하는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도리를 명확히 깨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천안통으로 이를 보시고, 광명을 보내어 모습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모든 것의 본성이 영속하지 않는 것을 계속 명상하여,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 정진하라 이르셨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게송을 읊어 설법하셨다.

"'죽지 않음(열반)'을 알지 못하는 이로서 백년을 사는 것보다도, '죽지 않음'을 아는 이로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

이 설법이 끝나자 그녀는 최고의 경지인 아라한과를 성취하였다. 이상은 〈법구경〉에 나타난 일화이다. 위에서 고따미 장로니는 등잔불의 일어나고 사라짐이란 '생멸(生滅)' 현상의 본질을 깨달았다. 한 생각의 일어나고 사라짐, 숨을 들이 쉬고 내쉼, 육신의 생과 사가 등잔불의 켜지고 꺼지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본래 공(空)한 것임을 깨달아 생사(生死)로부터 해탈한 것이다.

중생은 '생사'라는 망념이 공한 것임을 알지 못하기에 온갖 경계가 차별이 있는 듯 느끼지만 망념이 공한 것임을 요지한다면, 곧 고통(死)과 즐거움(生)에 집착하여 구속되지 않는다. 때문에 영명연수 선사는 〈종경록〉에서 "능(能: 주관)과 소(所: 객관)가 다 함께 공하니, 누가 취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겠는가. 이미 집착하여 취하는 마음이 없다면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원각경〉에서 "일체가 허공의 꽃인 줄을 알면 곧 생사의 흐름이 없으며 또한 생사를 받는 나라고 할 마음도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괴로움의 소멸' 즉, 열반이란 모든 현상의 무상(無常)과 무아를 자각하여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열반은 미움과 탐욕과 무지가 소멸하는 것이며, 그 결과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마음의 해탈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숫타니파타〉에서는 "아무런 소유도 없고 집착해 얻는 일이 없는 것—이것이 바로 피난처이다. 열반이라 부르는 그것은 노쇠(老衰)와 죽음의 소멸이다"라고 설하고 있다.

김성우 객원기자

석가모니불 양류관음 천수천안

本佛 조성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기능 3568호 임병배 합장 011-799-4041

산신님 나한님
성불조각미술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번지 공방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전라도 : 010-2311-0157
경상도 : 011-327-769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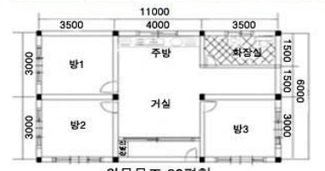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02)2663-6655 /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목재 골조 평당45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 180*180
다그라스목재도리 : 180*125
다그라스목재서까래 : 100*100
원목목재 상냥: 150*125
특허 브라캣
※ 황토흙벽돌,내화벽돌,판넬등 시공가능


원목목조 20평형

원목목재기둥:100×100×400
원목목재도리:120×50
원목목재중간대:70×50
폴리프로필렌마루판 : 100*15
알루미늄 테두리
특허 브라캣
◆ 원목평상 2100×1800×400(mm)
가격 : 350,000 할인가 : 250,000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마루판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조립식평상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계좌번호 : [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 : 지구산업 곽영호
전품목부가세별도 전국대리점모집